

“5년전 후회 되풀이 말자” 차바위의 각오



언더독으로 극적 4강 후 5차전 때 “농구인생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 경험과 책임감으로 봄농구 투혼 “KBL 첫 리버스 스윕 꼭 해낸다”



인천 전자랜드 베테랑 포워드 차바위(32·192cm)는 플레이오프(PO) 경험도 풍부하다. 2012~2013시즌 데뷔한 이래 군 입대로 뛰지 못한 2015~2016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PO무대를 밟았다.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6강, 4강 PO(이상 5전3승제) 8경기 포함 PO(챔피언결정전 포함)에서만 45경기를 뛰었다.

PO 경험이 많은 베테랑답게 전주 KCC와 4강 PO 시리즈에서 노련한 플레이로 팀의 핵심 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인천에서 열린 4강 PO 4차전에서는 3점슛 4개 포함 17점을 올려 팀 승리를 주도했다. 그 덕분에 전자랜드는 2연패 후 2승으로 시리즈를 5차전까지 끌고 갔다.

전자랜드는 29일로 예정된 5차전에서 KBL PO 역사상 첫 리버스 스윕(2패 후 3연승)에 도전한다. 전자랜드는 모기업이 농구단 운영을 포기해 '전자랜드'라는 이름으로는 이번 PO가 마지막 무대다. 차바위는 5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전자랜드 PO 최초 리버스 스윕'이라는

글귀를 KBL 역사에 남겨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2014~2015시즌과 2018~2019시즌을 떠올렸다. 전자랜드는 2014~2015시즌 정규리그 6위로 힘겹게 6강 PO에 올랐다. 하지만 3위 서울 SK에 3연승을 거두고 4강 PO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4강 PO에선 원주 DB(정규리그2위)를 만나 접전을 펼쳤지만 5차전에서 패배해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진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2019시즌에는 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전에 올랐지만 울산 현대모비스에 1승4패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차바위는 “2014~2015시즌 4강 PO, 2018~2019시즌 현대모비스와 챔피언전 패배는 내 농구인생에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다. 후회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어 동료들에게 ‘이번 PO에서 후회 없이 경기하자’는 말을 해왔다. 전자랜드로는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더 후회 없이 뛰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전자랜드 선수들은 고양 오리온과 6강 PO부터 ‘볼 농구’에서 8경기를 소화해 체력소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기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차바위는 “힘들지만 3, 4차전을 승리해 모두가 자신감이 생겼다. 분위기가 좋아진 덕분에 체력소모를 덜 느끼는 듯 하다. 좋은 흐름을 탔으니 5차전도 후회 없이 뛰고 챔피언결정전에 꼭 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자랜드 포워드 차바위는 이번 시즌 KCC와 4강 PO 시리즈에서 노련한 플레이로 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차전에서는 3점슛 4개 포함 17점을 올려 팀 승리를 주도했다. 그는 “전자랜드로는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뛰고 싶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타이틀을 건 빅매치가 성사됐다. 황인수(왼쪽)와 오일학이 7월 3일 열리는 로드몰 로드FC 058 대회에서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사진제공 | 로드FC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냐? 오일학이냐?

7월 창원 로드몰 로드FC 058서 대격돌 기존 챔피언 양해준은 은퇴 배우의 길로



로드몰 로드FC 058에서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이 탄생한다.

로드FC 정문홍 회장과 김대한 대표는 27일 공식 온라인 채널 ‘김앤정TV’ 영상을 통해 황인수(27)와 오일학(19)의 미들급 타이틀전을 발표했다. 두 파이터의 경기는 7월 3일 창원에서 열리는 로드몰 로드FC 058에서 진행된다.

로드FC는 지난 15일 로드몰 로드FC 058 대회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김 대표가 ㈜아키노 종합건설의 박준혁 대표와 창원 대회 공동 개최 계약식을 가졌다. 박 대표는 창원시의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로드FC 대회를 유치, 로드몰 로드FC 058의 개최장을 맡았다.

타이틀을 건 빅매치가 성사됐다. 미들급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황인수와 오일학이 맞붙는다. 기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양해준은 벨트를 반납하고 은퇴를 선언, 배우의 길을 걷기로 했다.

김 대표는 김앤정TV 영상을 통해 “양해준은 (계약) 합의 해지하고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공식이 된 타이틀을 놓고 황인수와 오일학, 두 선수가 맞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수를 보면 코너 맥그리거 느낌이 많이 든다. 펀치가 강한 것도 비슷하고, 화려한 스타일이다. 스타성을 가진 선수”라고 덧붙였다. 오일학에 대해서는 “최근 실력이 급성장했다. ARC 대회에서 김은수, 박정교와 대결을 통해 실력이 늘었다. 황인수가 결코 알뜰 수 없는 상대다”고 설명했다.

로드FC는 7월 3일 창원에서 로드몰 로드FC 058을 개최한다. 로드FC 역사상 처음으로 창원에서 열리는 대회다. ‘아쿠자’ 김재훈과 ‘영화배우’ 금광산이 맞붙고, 황인수와 오일학이 미들급 챔피언 타이틀전을 치러 새로운 챔피언을 가린다. 정문상 기자 award@donga.com

4강 5차전 지켜본 설린저 “전자랜드 활동량 엄청나지만...”

(KGC)

“5차전서 누가 이기는 자신있다” 김승기 감독 “방심만 안하면 돼”

일찍 끝날 것 같았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전주 KCC가 1, 2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시리즈가 손쉽게 끝날 분위기였지만 전자랜드가 홈 3, 4차전을 모두 큰 점수차로 이겼다. 2승 2패가 된 두 팀은 29일 전주체육관에서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진출을 놓고 5차전 끝장 승부를 펼친다.

4강 PO를 일찌감치 끝내고 챔피언전에서 선착한 안양 KGC는 여유롭게 KCC와 전자랜드의 혈투를 바라보고 있다. KGC는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4강 PO를 3연승으로 통과했다. KGC는 부산 KT와 6강 PO(3승)까지 포함해 PO무대에서는 한 번의 패배 없이 6연승을 달렸다. 그 덕분에 체력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고, 시리즈 사이에 충분한 정비의 시간도 갖고 있다.

KGC는 자신감이 넘친다. KGC 김승기 감독(49)은 “PO에서 픽&롤 수비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챔피언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선수들이 자기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 챔피언전에서 방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 나도 선수들도 모두 자신 있다”고 말했다. KGC는 4강 PO를 마친 뒤 이틀을 쉬고 29일부터 챔피언전 준비를 시작한다.

PO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KGC 외국인선수는 제러드 설린저(29·204cm)는 27일 KCC와 전자랜드의 4강 PO 4차전이 열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을 직접 찾아 경기를 지켜봤다. 그는 “팀 훈련이 없어 경기장에 왔다. 전자랜드 선수들의 활동량이 엄청나더라. 5차전에서 어느 팀이



KCC와 전자랜드가 벌이는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PO가 5차전까지 가자 챔피언전에 선착한 KGC는 웃고 있다. KGC 외국인 선수 제러드 설린저는 27일 4차전이 열린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을 찾아 챔피언전에서 만날 상대팀을 분석하는 여유도 보였다. 인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챔피언전에서 누굴 만나든 자신있다”고 일찌감치 마지막 무대에서 만날 상대팀 분석에 나선 모습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바르가1순위로 지명

V리그 여자부 외국인 트라이아웃

바르가 “첫 외국인선수로 최선 다할것” 흥국생명 4순위...캐서린 벨 선택

사상 2번째로 벌어진 V리그 여자부 비대면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바르가가 41명의 외국인선수 가운데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28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이 유희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신생팀으로 우선지명 순번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첫 번째 외국인선수로 바르가를 선택했다. 많은 팀들이 원한 선수다. 그는 화상 인터뷰에서 “루마

니아 집에서 어머니와 트라이아웃을 지켜봤다. 1순위 선발을 기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떨고 있다. 신생팀 첫 외국인선수로서 항상 팀이 이기는 것에 목표를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존 6개 구단이 120개의 구슬로 확률추첨을 한 결과 전체 2, 3순위는 지난 시즌 최하위 팀 현대건설과 5위 팀 KGC인삼공사가 각각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야스민 베다르트(미국)를, KGC 인삼공사는 엘레나 므라제노비치(보스니아) 선택했다.

확률추첨의 최대이변은 흥국생명이었다. 14개의 구슬로 11.6%의 낮은 확률이었지만 4순위의 행운을 잡았다. 박미희 감독은 2015~2016시즌 GS칼텍스에서 댄 캐서린 벨을 지명했다.



28일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2021~2022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이 라이트 공격수 엘리자베스 바르가를 1순위 지명했다. 선수들은 화상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사진제공 | KOVO

전체 5순위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뛰었던 켈시 페인과 전날 재계약을 발표해 가장 느긋한 입장이었다. 페인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1~2022시즌 연봉으로 30만 달러(세금포함)를 받는다. 기본 급여는

8개월간 매월 2만2400 달러를 받고 3라운드와 6라운드 종료 때 각각 3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선수들이 태업할 것을 걱정한 일종의 방어 장치다. 최초 계약선수 연봉은 세금포함 20만 달러다. 기본 급여

순위	팀	선수(국적)	나이	신장	포지션	비고
1	페퍼저축은행	엘리자베트 바르가(헝가리)	22	192cm	라이트	최초
2	현대건설	야스민 베다르트(미국)	24	196cm	라이트	최초
3	KGC인삼공사	엘레나 므라제노비치(보스니아)	23	196cm	라이트	최초
4	흥국생명	캐서린 벨(미국)	28	188cm	레프트라이트	2번째
5	도로공사	켈시 페인(미국)	25	193cm	라이트	재계약
6	IBK기업은행	레베카 라셈(미국)	23	191cm	라이트	최초
7	GS칼텍스	레티치아 모타 바스코(카메룬)	27	184cm	라이트	최초

와 계약유지수당이 포함된다. 6, 7번째 순번을 잡은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는 각각 레베카 라셈(미국)과 레티치아 모타 바스코(카메룬)를 선발했다. 라셈은 할머니가 한국인이다. 외국인선수들은 7월 1일부터 입국해 8월 1일부터 선수단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 외국인선수 교체는 시즌 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시즌 도중에는 2번 가능하다. 부상이나 사고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가 교체도 가능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